

http://dx.doi.org/10.17703/JCCT.2023.9.5.219

JCCT 2023-9-27

언어재활실습 여부에 따른 예비언어재활사의 역량조사

Study of Porspective Speech and Language Pathologist Competence by Completion of Clinical practicums

김화수*, 구예주**, 이지우***, 이주현****

Wha-Soo Kim*, Ye-Joo Koo**, Ji-Woo Lee***, Ju-Hyeon Lee****

요약 본 연구는 언어재활실습 여부에 따른 예비언어재활사 역량에 대해 알아보고 예비언어재활사 지도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비언어재활사 역량은 직무, 지식, 기술, 언어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언어 영역은 의미, 형태, 화용으로 하위영역을 구분하여 총 36문항의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언어치료전공 학생으로 총 105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실습 여부에 따른 예비언어재활사 역량을 분석하기 위해 t-검정, Pearson 상관분석,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량 영역의 지식, 직무, 기술, 그리고 언어의 모든 영역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역량과 언어 하위영역 간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역량 하위영역과 언어 영역에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며 예비언어재활사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예비언어재활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언어 요소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하며, 이론이 예비언어재활사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예비언어재활사의 역량 향상과 전문적인 언어재활사 양성 및 이론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교수법의 근거 자료로 의미 있게 사용될 것을 기대한다.

주요어 : 예비언어재활사, 언어재활실습, 언어치료역량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ompetence of porspective speech and language pathologist according to Clinical practicums and to use it as basic data in guiding porspective speech and language pathologist. The porspective speech and language pathologist competence consisted of tasks, knowledge, skills, and language areas, and a total of 36 questionnaires were organized by dividing the language areas into sub-areas of smantics, morphology and pragmatics. A total of 105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students with experience in Clinical practicums. A t-test,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competence of porspective speech and language pathologist according to whether or not they practic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all areas of knowledge, tasks, skills, and language in the competence area. Second, there was a very strong correlation between competence and language sub-areas. Third, it was found that it had a significant explanatory power in the sub-area of competence and language areas, and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ompetence of porspective speech and language pathologis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hould be based on theoretical knowledge of language elements to enhance the competence of porspective speech and language pathologist, and it can be confirmed that theory affects the competence of porspective speech and language pathologist. It is expected to be meaningfully used as a basis for efficient teaching methods based on the improvement of the capabilities of porspective speech and language pathologist, training training professional language rehabilitators, and theory, and theory.

Key words : porspective speech and language pathologist, Clinical practicums, language therapy competency

*정회원,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제1저자)

Received: July 30, 2023 / Revised: August 22, 2023

**준회원, 대구대학교대학원 재활과학과 언어치료전공 석사과정
(참여저자)

Accepted: September 1, 2023

****Corresponding Author: 5124aegod@naver.com

***정회원,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겸임교수 (참여저자)

Dept. of Speech Language Pathology, Daegu Univ, Korea

****준회원, 대구대학교대학원 재활과학과 언어치료전공 석사과정
(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7월 30일, 수정완료일: 2023년 8월 22일

게재확정일: 2023년 9월 1일

1. 서 론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들이 있으며 그 중 말과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어재활사라는 직업이 있다. 언어재활사는 언어치료 대상자의 언어 이해 및 표현 능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모든 치료 활동을 증대하는 전문가이다[1]. 또한 미국음성 및 청각협회[2]에서는“언어치료사는 말·언어장애, 삼킴장애(연하장애)를 평가하고 또한 치료할 때 개별화된 장단기 목표를 수립하며, 치료 현장이나 개인의 진단 및 요구·필요에 따라 재활서비스는 개별 또는 그룹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언어재활사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나는 대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인지능력에 비하여 수용 및 표현 언어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조음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기질 및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중에서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언어 사용 체계에서 언어표현에 문제가 일어나거나 특별한 사고 및 선천적인 문제로 인하여 언어사용을 올바르게 할 수 없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언어 및 말소리의 사용에 제한이 생긴 경우 언어치료를 필요로 하게 된다[3].

언어재활의 목적인 의사소통은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면서 늘 해야 하는 것이며[4], 이는 청자와 화자 그리고 내용으로 구성되어 상호 간에 언어를 매개로 주고받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언어적 요소와 제스처, 표정 등의 비언어적 요소 등이 포함된다[5]. Owens에 의하면 언어적 요소는 크게 의미, 형태, 화용 측면으로 분류되며, 의미는 핵심적인 요소로 어휘 지식과 사물 및 사전에 관한 지식을 의미하고, 형태는 단어의 구조 및 규칙과 문장 구성 등의 문법적 규칙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6]. 화용은 화자의 말의 의도를 이해하고, 환경적 문맥 파악을 통해 상황에 맞게 언어를 사용하여 성공적인 의사소통으로 이끄는 능력을 의미한다[7]. 언어적 요소는 언어활동을 위한 지식기반을 제공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며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된다[8].

이러한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할 경우 자신의 의도가 잘못 전달되어 상대방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갈등의 발생은 대인관계에 관한 자신감을 결여시키고[9], 삶의 질과 관련된다[10]. 언어재활사는 의사소통 장애를 겪는 사람들의 특성을 이해하여 대상자가 의사소통 기술을 배워 타인과 더 나은 의사소통을 확립할 수 있도록 언어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 주변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나 각 시·도의 지원이 마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및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 제공 시 서비스 내용, 특이사항 등이 작성된 ‘서비스 제공기록지’와 서비스 목표, 활동 및 상담 내용과 언어재활사 의견이 포함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2023년부터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 강화 및 보호를 위해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11]. 또한 각 시·도에서 지원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의 지원을 통해 의사소통발달을 촉진시키고자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언어재활사의 업무는 주 역할인 언어치료 외에도 부모 상담, 보고서 작성과 같은 행정업무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언어재활사는 대상자의 말, 언어 및 의사소통 문제의 원인과 증상의 평가, 적절한 증세의 계획과 적용, 그리고 가족 및 관련 구성원들에 대한 지원 및 적절한 평가, 중재 도구의 연구와 개발까지 전문적인 다양한 능력이 필요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12-14].

언어재활사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학교의 언어치료 관련 학과에서 실습을 포함한 10개의 필수 교과목과 23개의 선택과목 중 9과목 이수 및 관련 학과 학위 취득이 필요하다. 이수 교과목 중 실습과목은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 총 3과목이 있으며, 언어재활관찰은 30시간 이상,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은 총 9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언어재활실습은 다른 모든 언어재활 교과목의 통합체로 후일 언어재활사로 근무할 때 언어재활사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교육이다[15]. 각

대학에서는 실습 진행 시 진단보고서, 장·단기계획서, 회기계획서, 진전보고서 등 다양한 보고서 작성을 지도하고 있으며, 슈퍼바이저와의 임상 미팅 내에서 이론을 기반으로 한 피드백을 통해 다양한 치료 사례를 공유하여 직·간접적인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언어재활실습 교육은 졸업 후 임상 현장에서 언어재활전문가로서 빈틈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학문의 기초 및 전공 내용으로 이루어진 이론적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이를 바탕으로 관찰이나 실습을 경험하여 언어재활사로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배우게 하며, 전문직 언어재활사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기본 자질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둔다[16]. 즉, 실습은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재활의 과정을 체계적이고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 실제 임상에서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으로[17] 학생들은 실습을 통하여 전공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치료 기술, 타인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사회적 개념 등 언어재활사로서의 역량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18].

본 연구는 실습 경험이 없는 예비언어재활사와 실습 경험이 있는 예비언어재활사의 예비언어재활사 역량 인식 차이를 조사하여 학생들이 생각하는 예비언어재활사 역량의 정도를 파악하고 임상 지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예비언어재활사의 실습 경험 여부에 대한 역량 인식은 어떠한가?
- 둘째, 역량 검사의 하위영역별 상관은 어떠한가?
- 셋째, 언어관련 영역(의미, 형태, 화용)과 예비언어재활사의 역량(지식, 직무, 기술)과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예비언어재활사를 대상으로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언어치료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본인이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만 실시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성실하게 임한 응답자는 총 105명으로 표 1과 같이 응답자는 여학생이 91명(86.7%), 남학생이 14명(13.3%)이며,

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은 53명(50.5%), 아직 실습 경험이 없는 학생은 52명(49.5%)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정보
 Table 1. Information of subjects

분류		n (%)
성별	여자	91 (86.67)
	남자	14 (13.33)
실습 참여 기간	실습 경험 無	52 (49.52)
	실습 경험 6개월 이상	53 (50.48)

2. 연구도구

실습 여부에 따른 예비언어재활사 역량에 대한 인식 조사를 위해서 예비언어재활사 역량 및 언어 요소를 중심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예비언어재활사 역량은 전이슬[19]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직무, 지식, 기술로 구분하였으며, 언어 요소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언어치료 전공 서적을 참고 하였다. 1) 신명선[20]의 선행연구의 하위영역 중 언어능력, 2) '아동언어장애[21]', 3) '언어발달장애[22]', 4) '언어발달[23]'의 장애별 주요 언어 특성 내용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설문지는 선행연구에 따라 예비언어재활사 역량을 직무, 지식, 기술 각 6문항, 언어 요소를 의미, 형태, 화용 각 6문항으로 구분하여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5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나타내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설문지를 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예비언어재활사 역량을 직무, 지식, 기술, 언어의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언어 영역은 형태, 의미, 화용으로 하위영역을 분류하여 각 영역별 6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성된 설문지는 언어치료를 전공한 박사 4명, 석사 4명의 전문가에 의해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1차 수정 및 보완하였다. 또한 예비언어재활사의 입장에서 설문지를 보완하고자 실습 경험이 없는 예비언어재활사 3명, 실습 경험이 있는 예비언어재활사 2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을 2차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조사는 2023년 03월부터 04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설문지 또는 구글폼(온라인 설문지)을 배포하였다. 불성실한 응답으로 판단되는 설문 1건을 제외하여 총 10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연구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예비언어재활사의 인식의 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하위영역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언어 요소관련 하위영역이 예비언어재활사의 역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예비언어재활사의 실습 경험 여부에 따른 전체문항의 평균 비교

실습 경험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예비언어재활사 역량의 전체 평균 점수를 독립표본 t-검증 결과, 표 2 및 그림 1과 같이 실습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은 4.01(SD=0.55), 실습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은 3.02(SD=1.17)로 실습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이 실습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컸으며,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표 2. 집단 간 전체점수 평균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Average Score between Groups

구분	N	M	SD	t(p)
실습 경험 有	53	4.01	0.55	30.71 (.000)***
실습 경험 無	52	3.02	1.17	

*** $p<.001$



그림 1. 집단 간 전체점수 평균 비교
Figure 1. Comparison of Average Score between Groups

1) 집단 간 예비언어재활사의 역량 하위영역별 평균 비교 결과

(1) 지식 영역 평균 점수 비교 결과

집단 간 지식 문항의 평균 점수를 독립표본 t-검증 결과, 아래의 표 3과 같다. 실습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은 3.88(SD=0.65), 실습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은 3.02(SD=1.22)로 실습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이 실습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컸으며,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표 3. 집단 간 지식 평균 점수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Knowledge Average Scores between Groups

구분	N	M	SD	t(p)
실습 경험 有	53	3.88	0.65	24.612 (.000)***
실습 경험 無	52	3.02	1.22	

*** $p<.001$

(2) 직무 평균 점수 비교 결과

집단 간 직무 문항의 평균 점수를 독립표본 t-검증 결과, 아래의 표 4와 같다. 실습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은 4.03(SD=0.65), 실습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은 2.82(SD=1.24)로 실습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이 실습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컸으며,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표 4. 집단 간 직무 평균 점수 비교
Table 4. Comparison of Tasks Average Scores between Groups

구분	N	M	SD	t(p)
실습 경험 有	53	4.03	0.65	28.27 (.000)***
실습 경험 無	52	2.82	1.24	

*** $p<.001$

(3) 기술 평균 점수 비교 결과

집단 간 기술 문항의 평균 점수를 독립표본 t-검증 결과, 아래의 표 5와 같다. 실습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은 3.95(SD=0.60), 실습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은 3.09(SD=1.19)로 실습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이 실습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컸으며,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표 5. 집단 간 기술 평균 점수 비교
 Table 5. Comparison of Skills Average Scores between Groups

구분	<i>N</i>	<i>M</i>	<i>SD</i>	<i>t(p)</i>
실습 경험 有	53	3.95	0.60	28.99 (.000)***
실습 경험 無	52	3.09	1.19	

****p*<.001

집단 간 예비언어재활사의 역량의 전체 하위영역(지식, 직무, 기술) 평균 비교 결과는 아래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집단 간 예비언어재활사 역량 점수 평균 비교
 Figure 2. Comparison of prospective speech and language pathologist Competence Average Score between Groups

2) 집단 간 예비언어재활사의 언어 관련 하위영역별 평균 비교 결과

(1) 언어 하위 영역인 의미 평균 점수 비교 결과
 집단 간 의미 문항의 평균 점수를 독립표본 *t*-검증 결과, 아래의 표 6과 같다. 실습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은 3.98(*SD*=0.62), 실습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은 2.95(*SD*=1.19)로 실습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이 실습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컸으며,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표 6. 집단 간 의미 평균 점수 비교
 Table 6. Comparison of Semantics Average Scores between Groups

구분	<i>N</i>	<i>M</i>	<i>SD</i>	<i>t(p)</i>
실습 경험 有	53	3.98	0.62	29.45 (.000)***
실습 경험 無	52	2.95	1.19	

****p*<.001

(2) 언어 하위 영역인 형태 평균 점수 비교 결과

집단 간 형태 문항의 평균 점수를 독립표본 *t*-검증 결과, 아래의 표 7과 같다. 실습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은 4.04(*SD*=0.58), 실습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은 3.04(*SD*=1.22)로 실습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이 실습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컸으며,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표 7. 집단 간 형태 평균 점수 비교
 Table 7. Comparison of Morphology Average Scores between Groups

구분	<i>N</i>	<i>M</i>	<i>SD</i>	<i>t(p)</i>
실습 경험 有	53	4.04	0.58	33.85 (.000)***
실습 경험 無	52	3.04	1.23	

****p*<.001

(3) 언어 하위 영역인 화용 평균 점수 비교 결과

집단 간 화용 문항의 평균 점수를 독립표본 *t*-검증 결과, 아래의 표 8과 같다. 실습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은 4.18(*SD*=0.52), 실습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은 3.21(*SD*=1.15)로 실습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이 실습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컸으며,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표 8. 집단 간 화용 평균 점수 비교
 Table 8. Comparison of Pragmatics Average Scores between Groups

구분	<i>N</i>	<i>M</i>	<i>SD</i>	<i>t(p)</i>
실습 경험 有	53	4.18	0.52	44.16 (.000)***
실습 경험 無	52	3.21	1.15	

****p*<.001

집단 간 예비언어재활사의 언어 요소 관련 전체 하위영역(의미, 형태, 화용)의 평균 비교 결과는 아래의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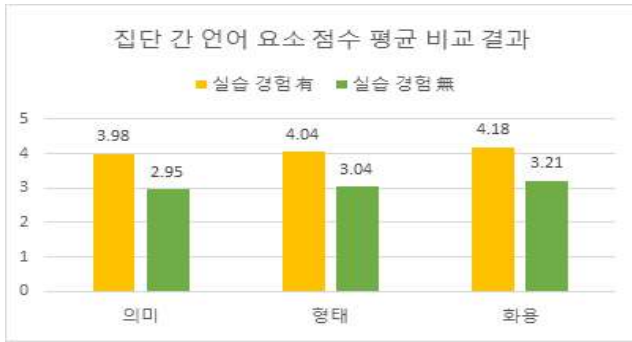


그림 3. 집단 간 언어 요소 점수 평균 비교
Figure 3. Comparison of Language Sub-elements Average Score between Groups

2. 예비언어재활사 역량 검사의 하위영역별 상관분석

예비언어재활사 역량 하위영역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9와 같다. 상관분석 결과 모든 하위영역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중 형태와 의미 간의 상관관계가 .858($p<.0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화용과 기술 간의 상관관계가 .725($p<.001$)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r=.725\sim.858$ 로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9. 하위영역 간 상관관계 분석

Table 9.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Sub-elements

구분	지식	직무	기술	의미	형태	화용
지식	1					
직무	.835***	1				
기술	.779***	.839***	1			
의미	.837***	.826***	.848***	1		
형태	.768***	.814***	.838***	.858***	1	
화용	.752***	.794***	.725***	.745***	.836***	1

*** $p<.001$

3. 예비언어재활사의 언어 관련 영역(의미, 형태, 화용)과 역량 하위영역별 단순회귀분석 결과

언어 요소(의미, 형태, 화용)가 언어재활사 역량의 하위영역인 지식, 직무,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언어 하위영역(의미, 형식, 화용)과 역량 하위영역

(지식)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결과

의미 영역이 지식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10과 같이 $F=119.450(p<.001)$ 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미 영역이 지식 영역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870(p<.001)$ 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였다. 의미 영역이 1점 증가하면 0.870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며, 회귀선에 의한 설명에 따르면 지식 영역은 의미 영역에 의해 70.1%를 설명할 수 있다.

표 10. 의미 영역과 지식 영역 간 단순회귀분석

Table 10. Simple Regression Analysis of Semantics and Knowledge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F(p)$	R^2
	B	SE	β			
(상수)	.424	.320		1.325	119.450***	.701
의미	.870	.080	.837	10.929***		

*** $p<.001$

형태 영역이 지식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11과 같이 $F=73.278(p<.001)$ 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태 영역이 지식 영역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852(p<.001)$ 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였다. 형태 영역이 1점 증가하면 0.852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며, 회귀선에 의한 설명에 따르면 지식 영역은 형태 영역에 의해 59.0%를 설명할 수 있다.

표 11. 형태 영역과 지식 영역 간 단순회귀분석

Table 11. Simple Regression Analysis of Morphology and Knowledge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F(p)$	R^2
	B	SE	β			
(상수)	.434	.407		1.067	73.278***	.590
형태	.852	.100	.768	8.560***		

*** $p<.001$

화용 영역이 지식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12와 같이 $F=66.539(p<.001)$ 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용 영역이 지식 영역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937(p<.001)$ 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

하였다. 화용 영역이 1점 증가하면 0.937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며, 회귀선에 의한 설명에 따르면 지식 영역은 화용 영역에 의해 56.6%를 설명할 수 있다.

표 12. 화용 영역과 지식 영역 간 단순회귀분석 결과
 Table 12. Simple Regression Analysis of Pragmatics and Knowledge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F(p)$	R^2
	B	SE	β			
(상수)	-.032	.484		-.066		
화용	.937	.115	.752	8.157***	66.539***	.566

*** $p < .001$

2) 언어 하위영역(의미, 형식, 화용)과 역량 하위영역(직무)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결과

의미 영역이 직무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13과 같이 $F=109.656(p < .001)$ 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미 영역이 지식 영역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 = .859(p < .001)$ 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였다. 의미 영역이 1점 증가하면 0.859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며, 회귀선에 의한 설명에 따르면 직무 영역은 의미 영역에 의해 68.3%를 설명할 수 있다.

표 13. 의미 영역과 직무 영역 간 단순회귀분석 결과
 Table 13. Simple Regression Analysis of Semantics and Tasks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F(p)$	R^2
	B	SE	β			
(상수)	.609	.330		1.844		
의미	.859	.082	.826	10.472***	109.656***	.683

*** $p < .001$

형태 영역이 직무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14와 같이 $F=100.147(p < .001)$ 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태 영역이 직무 영역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 = .905(p < .001)$ 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였다. 형태 영역이 1점 증가하면 0.905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며, 회귀선에 의한 설명에 따르면 직무 영역은 형태 영역에 의해 66.3%를 설명할 수 있다.

표 14. 형태 영역과 직무 영역 간 단순회귀분석 결과
 Table 14. Simple Regression Analysis of Morphology and Tasks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F(p)$	R^2
	B	SE	β			
(상수)	.367	.370		.992		
형태	.905	.090	.814	10.007***	100.147***	.663

*** $p < .001$

화용 영역이 직무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15와 같이 $F=87.177(p < .001)$ 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용 영역이 직무 영역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 = .991(p < .001)$ 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였다. 화용 영역이 1점 증가하면 0.991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며, 회귀선에 의한 설명에 따르면 직무 영역은 화용 영역에 의해 63.1%를 설명할 수 있다.

표 15. 화용 영역과 직무 영역 간 단순회귀분석 결과
 Table 15. Simple Regression Analysis of Pragmatics and Tasks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F(p)$	R^2
	B	SE	β			
(상수)	-.111	.447		-.249		
화용	.991	.106	.794	9.337***	87.177***	.631

*** $p < .001$

3) 언어 하위영역(의미, 형태, 화용)과 역량 하위영역(기술)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결과

의미 영역이 기술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16과 같이 $F=130.142(p < .001)$ 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미 영역이 지식 영역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 = .826(p < .001)$ 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였다. 의미 영역이 1점 증가하면 0.826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며, 회귀선에 의한 설명에 따르면 직무 영역은 의미 영역에 의해 71.8%를 설명할 수 있다.

표 16. 의미 영역과 기술 영역 간 단순회귀분석 결과
Table 16. Simple Regression Analysis of Semantics and Skills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F(p)$	R^2
	B	SE	β			
(상수) 의미	.658 .826	.292 .072	.848	2.257* 11.408***	130.142***	.718

* $p < .05$, *** $p < .001$

형태 영역이 기술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17과 같이 $F=120.541(p < .001)$ 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태 영역이 기술 영역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 = .874(p < .001)$ 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였다. 형태 영역이 1점 증가하면 0.874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며, 회귀선에 의한 설명에 따르면 기술 영역은 형태 영역에 의해 70.3%를 설명할 수 있다.

표 17. 형태 영역과 기술 영역 간 단순회귀분석 결과
Table 17. Simple Regression Analysis of Morphology and Skills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F(p)$	R^2
	B	SE	β			
(상수) 형태	.412 .874	.325 .080	.838	1.266 10.979***	120.541***	.703

*** $p < .001$

화용 영역이 기술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18과 같이 $F=56.368(p < .001)$ 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용 영역이 기술 영역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 = .847(p < .001)$ 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였다. 화용 영역이 1점 증가하면 0.847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며, 회귀선에 의한 설명에 따르면 기술 영역은 화용 영역에 의해 52.5%를 설명할 수 있다.

표 18. 화용 영역과 지식 영역 간 단순회귀분석 결과
Table 18. Simple Regression Analysis of Pragmatics and Skills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F(p)$	R^2
	B	SE	β			
(상수) 화용	.407 .847	.475 .113	.725	.856 7.508***	56.368***	.525

*** $p < .001$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예비언어재활사를 대상으로 언어재활 실습 경험 여부가 예비언어재활사의 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언어재활 실습 경험 여부에 따라 예비언어재활사 역량 인식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 하위영역 간의 상관관계 및 단순회귀분석 결과를 통한 결론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량 하위영역인 지식, 직무, 기술 모든 영역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언어관련 하위영역인 의미, 형태, 화용 영역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역량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신혜성과 김문정[24]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며, 이러한 인식 차이는 임상경험이 풍부하고 오랜 기간 현장에 있을수록 언어재활사 역량이 높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는 김수진과 유영준[25]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언어재활실습 경험은 전공에 대한 지식기반으로 예비언어재활사의 역량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론적 지식을 기본으로 한 실습 경험이 예비언어재활사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언어재활실습은 언어치료 전공 교과목을 근거로 하여 실습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어재활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습 그리고 이론을 근거로 한 적용 기술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예비언어재활사 하위역량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체 하위영역에서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언어의 하위 영역인 의미와 형태의 상관관계가 .858($p < .0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미와 형태는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내용을 구성하고 형식을 갖추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이며[22] 문어에서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능력[26]이다. 특히 의미는 언어의 가장 기초가 되는 어휘와 관련되는 영역이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휘를 기반으로 문장의 형태로 발전하면서 의사소통 능력이 발전하기 때문에 의미와 형태영역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언어 요소 하위영역을 예비언어재활사 역량과 단순회귀분석 실시 결과,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며 예비언어재활사 역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비언어재활사의 언어

요소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질수록 예비언어재활사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중 언어 요소의 하위 영역인 의미와 기술 영역에서 71.8%로 가장 설명력이 높았으며, 의미 요소는 지식영역에 0.870, 형식 요소는 직무영역에 0.905, 화용 요소는 직무영역에 0.991로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27]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학문의 기초 지식과 세부 전공지식을 진단 평가 및 임상에서 적절하게 적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전공서적은 학생 및 임상가를 위해 이론적 개념을 실제 임상에 초점을 두고 서술하였으며, 전공지식을 얻고 전문적인 평가 및 치료 방법의 확대를 목표로 작성되었기에[21], [22] 언어재활사 역량의 기초적 자료 제시를 위한 의미, 형식, 화용 등의 이론적인 지식이 중요하다.

이상을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 실습을 경험한 후 예비언어재활사 역량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졌으며, 언어 요소에 기초 지식에 대한 인식이 예비언어재활사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언어재활 실습 경험이 없는 집단은 이론적인 지식을 언어재활실습에 적용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언어재활사의 역량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그러므로 예비언어재활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언어 요소에 대한 이론적인 교육과 그러한 이론을 기반으로 각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실습을 통해 연습했을 때, 언어재활사의 역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습 경험 여부에 따른 예비언어재활사 역량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하위영역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언어 요소가 예비언어재활사의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인식조사 참여자가 일반화하기에는 적은 인원이라는 점과 언어 요소의 하위영역을 의미, 형식, 화용으로만 구성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후속연구에서는 하위영역으로 조음·음운, 유창성 및 비언어적인 요소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보다 많은 집단에서의 인식조사가 필요하다.

언어치료전공 학생들이 졸업 후 언어재활사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습에 임하는 책임감과 자신감을 주고, 전문적 지식을 임상에 접목시키는 효율적인 교수법을 갖춘 임상 슈퍼바이저의 역할이 중요하며, 임상실습에서 학생들에게 교과과정을 통해 학습한 이론을 실습에 적절하게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기반 학습 적용이 필요하다[16]. 본 연구가 예비언어재활사의 역량 향상과 전문적인 언어재활사 양성 및 이론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교수법 근거 자료로 의미가 사용될 것을 기대한다.

References

- [1] The Korean Association of Speech-Language Pathologists. <http://www.kslp.org>.
- [2] American Speech-Language Hearing Association (ASHA). <https://www.asha.org/>
- [3] H.S. Shin, M.J. Kim. "The Effect of Learning Motivation on Language Therapy Competency in Pre-service Speech-Language Pathologists",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Vol. 27, No. 4, pp. 197-203, 2018. DOI:10.15724/jslhd.2018.27.4.197
- [4] I.S. Jung. "A Study on the Educational methods of Communication through Chinese classics--focused on the concept of "Goodness" in Daehak--",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7, No. 1, pp. 461-468, 2021.
- [5] C.H. Park. "Investigating perceptions of speech-language therapy in a collaborative team approach to communication disorders", *The study of Education for Hearing-Language Impairments*, Vol. 11, No. 2, pp. 21-40, 2020. DOI:10.24009/ksehli.2020.11.2.002
- [6] J.R. Owens, R.O. Language Development: An Introduction.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1996.
- [7] C. Norbury, "Practitioner review: Social (pragmatic) communication disorder conceptualization, evidence and clinical implication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 55, No. 3, pp. 204-216, 2014. DOI:10.1111/jcpp.12154
- [8] J.H. Woo, S.S. Kim, "A study on language ability and reading ability of children with reading disability",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Vol. 11, No. 3, pp. 163-183, 2010. UCI:G704-001047.2010.11.3.016
- [9] M.J. Park, D.N. Oh, "Effects of Communication Skill on Interpersonal Satisfaction and Subjective Happines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7 No. 11, pp. 423-434, 2017. DOI:10.5392/JKCA.2017.17.11.423
- [10] S. Park, L. Ren, "The Effects of Sensory Integration Training on Motor, Adaptability and Language"

- uage Development in 3-5 Year-old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IJACT)*, Vol. 10 No. 4, pp. 294-303, 2022.
- [11]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amily Support Project Guide for Disabled Children in 2023. (Disabled Persons Service Division-722). <https://www.mohw.go.kr/>
- [12]K.J. Kim, “A Study of the Perception for Job Professionalism of SLPs: Focused on Private Speech-Language Therapy Centers”,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Vol. 30 No. 1, pp. 79-88, 2021. DOI:10.15724/jslhd.2021.30.1.079
- [13]Y.T. Kim, J.O. Kim, H.S. Jeon, H.J. Choi, M.J. Kim, T.W. Kim, M.K. Kang, “Job Analysis of Korean Speech-Language Pathologist Using Delphi Study”,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Vol. 23, No. 3, pp. 147-161, 2014. UCI:G704-000939.2014.23.3.006
- [14]H.S. Sim, Y.T. Kim, J.S. Kim, H.H. Kim, S. Y. Bea, M.J. Sin, M.S. Kwon. *Introduction to Communication Disorders*. Hakjisa Publisher, 2010.
- [15]M.S. Lee, H.P. Chan, H. Park. “A Study of the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and Practice-Related Anxiety of Students Majoring in Speech Rehabilitation”,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Vol. 24, No. 4, pp. 147-158. 2014. DOI:10.15724/jslhd.2015.24.4.014
- [16]S.Y. Kim, M.S. Shin, “A Study of the Satisfaction and Teaching Efficiency of Clinical Practice of Students Majoring in Speech-Language Pathology”,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Vol. 24, No. 4, pp. 17-31, 2015. DOI:10.15724/jslhd.2015.24.4.003
- [17]J.H. Yoon, J.W. Kim, “A Survey on the Satisfaction and Perception of the Clinical Practicum of Students Majoring in Speech Language Pathology”,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Vol. 22, No. 4, pp. 251-270, 2013. DOI:10.15724/jslhd.2013.22.4.014
- [18]B.L. Wheeler, “Music therapy practicum practice s: a survey of music therapy education”, *Journal of Music Therapy*, Vol. 37, No. 4, pp. 286-311. 2002. DOI:10.1093/jmt/37.4.286
- [19]Y.S. Jeon, D.Y. Kim, Y.W. Kim, H.H. Kim, “Core Capacities of Speech-Language Pathologists in Korea”,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Vol. 18, No. 1, pp. 1-11, 2013. DOI:10.12963/csd.13001
- [20]M.S. Shin, S.Y. Kim, “A Study About Recognition of Communication Importance and Performance Ability Among Students Majored in Speech-Language Therapy”,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Vol. 28, No. 4, pp. 171-180, 2019. DOI:10.15724/jslhd.2019.28.4.171
- [21]Hegde, M. N., Christine A., Maul, *Language Disorders in Children:An evidence based approach to assessment and treatment*. (H. S, Kim, S. S, Kim, S. G, Lee, Trans.). sigma press, 2016.
- [22]Rhea Paul, Courtenay F. N, *Language Disorders: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4th ed.)*. (H. S, Kim, S. S, Kim, S. H, Park, B. J, Chung, S. K, Lee, E. J, Lee, Y. J, Kwon. Trans.)Pakhaksa, 2014.
- [23]Erika Hoff, *Language Development(5th ed.)*. (H. J, Lee, E, Y, Kwon. Trans.). Pakhaksa, 2016.
- [24]H.S. Shin, M.J. Kim, “The Effect of Learning Motivation on Language Therapy Competency in Pre-service Speech-Language Pathologists”,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Vol. 7, No. 4, pp. 197-203, 2018. DOI:10.15724/jslhd.2018.27.4.197
- [25]S.J. Kim, Y.J. You, “Current Factors Contributing to Professionalism in Speech and Language Pathology”,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Vol. 16, No. 3, pp. 397-407, 2001. UCI:G704-000725.2011.16.3.009
- [26]M.B. Kim, “A Korean Literature Review of Metalinguistic skills in Semantics and Grammar”,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Vol. 23, No. 3, pp. 61-77, 2014. DOI:10.15724/jslhd.2014.23.3.006
- [27]S.A. Lee, “A Case Study of Flipped Learning in a Language Diagnosis Practice”,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Vol. 27, No. 4, pp. 137-144, 2018. DOI:10.15724/jslhd.2018.27.4.137